

## 중국지재권 전문가들, 중국에서의 특허분쟁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올해말이나 내년에 중국 내 기업을 상대로 특허전쟁을 수행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중국 지재권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다. Yuan Jianzhong 대만 정보산업원 지재권전담팀장은 최근 대련에서 있었던 지재권세미나에서 몇몇 제조업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은 특허가 거의 없으며 이 점이 외국자본 기업들의 주요한 초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마쓰시다, IBM, Nokia 등의 다국적 기업들은 무선통신, 광전자, 정보기술,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1999년부터 중국본토에서의 특허권 등록을 증가시켜 왔고 이들 몇몇 기업들의 특허권 등록이 기본적으로 완료됨에 따라서 특허전쟁이 시작될 기미가 보인다고 한다. Wei Jun 미국 Hogan & Hartson L.L.P. 법률회사 북경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미국에 의한 지재권조사 목표가 된 중국본토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초 한 중국기계제조회사는 시카고의 전시회에 참가했다가 그곳에서 미국회사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중국의 DVD제조업계는 총 30억 위엔(363백만US달러)의 특허실시료(제조되는 DVD 한 대당 4.5US달러)를 DVD기술의 핵심특허를 가지고 있는 Hitachi, Matsushita, Toshiba, 그 외 몇몇 서구회사들에게 지불했다. 이러한 외국기업에 기술사용료로 지불하는 총액은 100억 위엔(12억US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많은 중국기업들은 외국기업들과의 지재권소송에 있어서 분쟁을 피하려는 자

세를 가지고 있어서 타협에 의해서 거액의 실시료를 지불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의 일본기업들이 미국기업들과의 지재권침해분쟁에서 수십억달러의 실시료를 지불했던 사태와 일치하는 것이다.

중국 수출기업의 약 71%가 기술적인 통상장벽(technological trade barriers)에 부딪치고 있는데 이는 170억 달러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보여진다.

### 제조업분야에 특허가 거의 없는 중국기업은 외국자본 기업의 주요한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

중국 특허청 Zhang Qin 부청장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한 특허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수는 2000년에 6,177건이

고 이는 같은 해 일본의 5.5%, 미국의 7.2%에 불과한 것이었다. 2002년에 외국에 특허출원한 2,415건 중 192건이 등록되었는데 이는 미국에서 일본 NEC 한개 기업이 등록한 특허건수보다도 적은 것이다. Zhang 부청장은 덧붙여서 중국사회 전반에서 지재권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야 하며 지재권 소유자들과 그 법적 이익에 대한 보호를 개선하여야 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발명과 국내외에서의 독자적인 특허를 증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학에서 보다 많은 지재권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하고 지재권에 관한 직장 내 교육이나 원격 교육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피고용인에 의해서 얻어진 지재권에 관한 법률과 독점을 목표로 한 외국기업의 지재권남용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Chinaview.com, Xinhuanet

# USPTO, 생명공학 특허출원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발표

**미** 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생명공학 특허 출원에 대한 품질 향상과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내 놓았는데, 이는 1600 기술센터(TC 1600)에서 심사하는 생명공학, 의약 그리고 유기화학 분야의 특허 출원에서 발명 및/혹은 청구범위의 수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특허법상 USPTO는 단일의 출원에서 심사하는 발명의 수를 제한 혹은 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생명공학 출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부과되고 있는데, 그 기술의 성격과 복잡성에 기인한다.

이번에 발표된 5개 부문 실천계획은 1개 이상의 발명에 대한 권리청구를 하고 있는 출원을 다루는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TC 1600에서 심사되는 출원의 독특한 필요를 다루고 있다. 동 실천계획은 TC 1600의 특허심사관이 언제 어떻게 출원에 대한 제한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5개 부문 실천 계획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권리청구범위의 예 공개 : 현행 USPTO 심사관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는 권리청구범위의 예를 공개

답변서 제출 관행 강조 : 제한된 특정 권리청구 범위의 새로운 출원에 대한 대안으로 출원인과 심사관 사이의 의견서 및 답변서 제출 관행을 강조

제한 관행에 대한 심사관 교육 : 공동으로 심사해야 할 권리청구범위를 분석하고 인지하기 위

해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제한 관행을 적용하기 위해서 심사관에 대한 교육 실시

제한 요건의 품질 검토 강화 : 일치성을 증진하

기 위해서 심사관의 제한 결정에 대한 "2차적 검토(second pair of eyes)" 를 제공

실천계획의 진전 상황 평가 : 실천계획이 고객과 USPTO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

이번 TC 1600 제한 실천계획은 USPTO의 21세기 전략계획 목표와 일치할뿐더러, 또한 품질에 초점을 맞추고 USPTO 사용자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부시 대통령의 경영 아젠다(Management Agenda)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출처 USPTO

# 싱가폴국립대학, 기술이전에 민간전문회사 활용

**싱**가폴국립대학의 산업기술사무소(Industrial & Technology Relations Office : Intro)는 대학이 가지는 기술을 외부에 라이선싱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술이전전문회사를 활용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Intelleigen Pte Ltd는 기술브로커로서 싱가포르국립대학과 협력하는 첫 번째 회사가 되었다. 기술브로커는 그들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기술수요자를 찾아줄 수 있으며, 기업도 이 과정을 통해 기술을 공급받게 되어 연구개발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점을 누리게 된다.

싱가폴국립대학은 약 140개의 응용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Intelleigen Pte Ltd가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인도에 이들 기술을 판

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Intro의 부소장인 Tay Kim Huat는 동대학의 혁신 제품이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므로, 이들 기술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Intro는 매년 약 100건의 기술을 대학의 연구자로부터 보고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500건의 특허를 출원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싱가폴국립대학의 교수와 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하는 분야는 크게 물리과학 및 엔지니어링, 생명과학 그리고 IT이다.

Intro는 지금까지 150건의 라이선싱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5개가 넘는 기술기반 회사를 배출하였다.

출처 The Business Times Singapore

## 대학이 가지는 기술을... 외부에 라이선싱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술이전전문회사 활용

### 발명진흥 뿌리위에 열매맺는 산업발전

# WIPO회원국 지식재산권측면과 관련된 업무 강력히 추진

**W**IPO회원국들은 전통지식, 민속 및 유전자원의 지식재산권측면과 관련된 업무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WIPO총회(2003. 9. 22 - 10. 1 개최)에서는 많은 논란 끝에 지재권 및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속에 대한 WIPO의 정부간위원회(이하에서는 IGC이라한다)에 대한 위임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위임은 IGC가 위원회의 업무를 가속화하고 지재권 및 유전자원, 전통지식(TK) 및 민속의 국제적 차원에 대한 검토를 집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위임사항은 IGC가 지재권 및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속분야에서 가능한 한 국제기구의

창설을 포함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지재권의 폭넓은 긴급한 현안을 논의할 것을 위임받은 IGC

는 2000년 10월 WIPO 총회에서 창설되었으며, 2001년 4월 처음 도임을 가졌다.

그 이후 전통지식과 민속 및 유전자원의 지재권적인 측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IP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예를 들어 전통적인 지재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특별법으로 보호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 왔다.

## WIPO총회, 지재권 및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속에 대한 WIPO 정부간위원회에 대한 위임범위를 확대키로 결정

출처 WIPO press Release

**발명의로 가꾼세상 든든해진 우리미래**

## 영국정부, 최근 들어 많은 정부기관 상표를 등록했으나, 통일된 국가 이미지 확보에는 실패

**영**국의 토니블레어 행정부는 지난 6년동안 수백개의 상표를 등록하는데 7천5백만파운드를 넘게 지출하였다. 영국정부는 지난해에 Unilever나 ICI보다도 많은 상표를 출원하였다.

예컨대, 국방부만 해도 “The Desert Rats”, “The Black Watch”, “Cassandra” 등과 같은 로고를 비롯하여 약 265개의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775개에 달하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560개는 지난 6년동안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상표권을 취득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부서의 이름이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입장에서는 거의 800개에 달하는 상표중 무엇을 선택할 지가 당혹스러울 뿐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뒤섞여진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the Beachcroft 로펌의 변호사들은 정부 관련 상표들이 각각으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

기는 하지만, 정부 전체의 이미지를 통일화시키는 조정이 없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와는 달리 프랑스의 경우는 정부관

련 상표로서 Tricolore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검은 독수리를 국가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다.

출처 The Financial Times

### 정부관련 상표, 각각으로 보면 의미가 있으나, 정부 전체의 이미지를 통일화시키는 데에는 다소 문제

발명모아 지식재산 지식모아 선진대국

# 싱가폴의 최근 지재권 동향

## “싱가폴 기업사이에 특허를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기 시작”

**싱**가폴 기업 사이에 특허를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2001년의 특허 취득 건수는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취득 건수를 상회했다. 취득비용의 문제는 있지만, 경제가 글로벌화하는 가운데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싱가포르에서도 중요한 기업전략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연구청(ASTAR)이 매년 시행하는 「국민연구개발(R&D) 조사」에 의하면 2001년의 싱가포르 국내기업의 특허 취득 건수는 189건으로 외국기업의 157건을 상회했다. 경제개발청(EDB)은 지식재산권과 관계되는 전문직인 특허신청대리인, 변호사, 컨설턴트, 다국적기업의 IP포트폴리오를 감독하는 담당 매니저 등이 국내에 400~500명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개발청 지식재산권부의 리인 아담즈 부장은 국내 기업의 식견이 최근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중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에 새로운 가치의 원천으로 보게 되었다」고 한다.

“Asia Pacific Research and Positioning”에서 디렉터를 맡는 Darry Dickens씨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경기침체로 기업이 탐을 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IBM은 전세계에서 특허를 37,000건 이상 취득하고 있으며 2001년의 특허이익은 15억 미 달러로, 순이익의 2%를 차지했다.

특허취득비용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 오도리 압 변호사에 의하면 특허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특허취득 1건에 대해 3만~6만 싱가포르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복수의 국가에서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각국에서 특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경제의 글로벌화나 인터넷의 보급이 진행되는 속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존재가 되어 있다. Dickens씨는 또한 홍콩의 고급 두뇌 집단인 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PERC)가 행한 최근

**경제가 글로벌화하는 가운데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싱가포르에서도  
중요한 기업전략이 되고 있다.**

의 조사에서 싱가포르가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1위가 된 점을 지적한다.<sup>1)</sup> 싱가포르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정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작년 8월에

는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 일본에서 취득한 특허를 제시하면 싱가포르에서 신속히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상의 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상표, 특허에 관한 규제나 등록사무를 다루고 있던 단체를 2001년 4월, 법무부 산하의 지적재산사무국(IPOS)으로 개편했다.

2002년 9월에는 특허나 상표, 저작권 등을 전문으로 재판하는 지식재산법원이 대법원 빌딩내에 설치되어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나 관리 등에 대해서 강습이나 훈련을 하는 「지식재산권아카데미」도 금년 1월말에 서부 프린스 조지 파크에 정식 오픈 했다.

출처 일본야후뉴스

발행2003/11

1)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5위에 랭크